

경제

막걸리 항암효과 '입소문'

매출 다시 '수직상승'

을 상반기 성장세가 주춤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주 막걸리에 항암물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인기는 재점화되고 있다.

19일 이마트 광주점에 따르면 최근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연구분

이 들어있다는 보도 후 그동안 판매가 주춤했던 막걸리를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며 "당분간 이러한 막걸리 인기는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파스퇴르 막걸리 '순희'를 출시해 한 달만에 100만



GS25도 같은 기간 전국 매장의 막걸리 판매량이 지난주 대비 32.2%,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는 56.7% 성장했다.

한편 한국 식품 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최근 막걸리에 항암물질인 파네졸(Farnesol)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국내 시판중인 막걸리, 포도주, 소주 등의 파네졸 함량 분석결과 막걸리의 파네졸 함량이 포도주나 맥주보다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내 화제가 됐다.

당달아 막걸리 안주인 두부와 두부김치의 매출도 26.2% 늘어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대형유통업체 25~45% 급신장

등산로·행락지 인근 점포 매출도 늘어

서센터 연구팀의 연 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15~18 일 4일동안 막걸리 매출이 지난주 보다 25% 신장됐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동안 3% 정도 막걸리 매출이 늘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도 15~18일 나흘동안 지난주보다 무려 45%의 매출이 늘어났다.

배진상 롯데마트 월드컵점 대리 는 "최근 막걸리에 함성분이 많

병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보해양 조도 연구결과 발표 후 막걸리 판매량이 소폭 신장됐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이도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막걸리 매출이 지난주보다 45% 늘어났다.

특히 등산로, 행락지 등 유원지 인근 40여 곳의 점포의 막걸리 매출 신장 폭은 62.8%나 됐다.

당달아 막걸리 안주인 두부와 두부김치의 매출도 26.2% 늘어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박이 나왔네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프리미엄 식품매장에서는 여름철 대표과일 수박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그냥 먹어도 시원하지만 더 시원하게 먹으려면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고 남은 수박은 냅으로 써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무르지 않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인상

22일부터 열연·냉연·후판 등 t당 16만원씩

자동차·조선업종 제조원가 상승 대책 고심

포스코는 22일 주문분부터 열연, 냉연, 후판 등 주요 철강제품 가격을 t당 1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 코, 동국제강 등 다른 대형 철강사도 제품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잇따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다른 업종 제품의 생산 비용과 가격 인상에도 '도미노'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부터 주력 철강제품 가격 인상안을 확정한 뒤 주요 고객사들과 가격 협의에 들어갔다.

열연강판은 t당 90만원에서 106만 원으로 올리고 냉연강판은 102만원에서 118만원으로, 후판은 95만원에서 111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가격 인상은 15~20일 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포스코는 작년 7월 일부 제품 가격

을 올린 뒤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다. 그동안 철광석, 유연탄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돼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과 자사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 여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국한의 원가절감

만으로는 작년 하반기 이래 거듭해온 영업이익률 약세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부 유통상 등이 재고량을 늘리고 판매를 늦추는 등 수급 및 가격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도 이날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배경으로 엑계는 보고 있다.

포스코의 이날 가격 인상에 따라

코스피지수	2,122.68	(-15.04)
코스닥지수	526.62	(-1.90)
금리(국고채 3년)	3.71%	(+0.01)
원·달러 환율	1,091.50원	(+3.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금호파엔비화학

1300억원 투자
폐놀 설비 증설

금호파엔비화학은 일본 쓰키시마 사와 플랜트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주력 제품인 비스페놀에이(BPA) 생산능력을 15만t 증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1300억 원이 투자되며 완공 이후에는 연산 45만t으로 금호파엔비화학은 세계 5위의 BPA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증설은 최근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의 주원인인 BPA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밤 빠르게 결정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PA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원료 외에 코팅재료, 전기 절연재료, 풍력 블레이드 등 예폭시 수지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금호파엔비화학은 BPA의 원료인 폐놀과 아세톤도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동시에 증설을 추진한다.

이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폐놀 70만t, 아세톤 40만t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돼 세계적인 폐놀 및 BPA 전문 생산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아 신개념 중소형 세단 'K2' 첫 공개

상하이모터쇼 신차발표회

中 시장 겨냥 역동성 강조



기아자동차가 중국 전략차종으로 애심차로 준비한 신개념 프리미엄 중 소형 세단 'K2'를 첫 공개했다.

기아차는 19일 중국 상하이(上海)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린 '2011 상하이 모터쇼'에서 언론 매체들과 자동차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K2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기아차는 하반기 중국 출시를 위해 개발한 K2는 동급 경쟁차종 대비 상품성과 동력, 역동성, 디자인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침병 역할을 담당할 K2는 특히 '레드닷' 등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직선의 단순화'를

통해 간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는 평가다.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K2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17%를 차지하는 소형차급"이라

면서 "동급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K2를 앞세워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자동차 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연합뉴스

목표 주가 현대차 35만원·기아차 11만원

종목 목표주가로는 최고치다.

현대증권 채희근 애널리스트는 "당초 있던 2분기 실적 피크와 가을 이후 일본업체 대체적인 신차 출시 우려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호조세로 올해

내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세계 1위인 도요타와 비교할 때에도 구조적인 성장세에 있는 현대차의 주가 할인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올랐어도 도요타 대비 현대,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59%에 불과하고, 주가이익비율(PER) 차이는 12.9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www.jwad.co.kr

59
광주일보
1952-2011

열정을 디자인하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Realization=Vivid Dream
디자인기반의 종합광고대행사

Advertising Agency 주정원애드

Animation
Online AD
Printing
Graphic Design
Election & Exercise
Sign
Media & Presentation

22일부터 열연·냉연·후판 등 t당 16만원씩

자동차·조선업종 제조원가 상승 대책 고심

포스코는 22일 주문분부터 열연, 냉연, 후판 등 주요 철강제품 가격을 t당 1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 코, 동국제강 등 다른 대형 철강사도 제품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잇따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다른 업종 제품의 생산 비용과 가격 인상에도 '도미노'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부터 주력 철강제품 가격 인상안을 확정한 뒤 주요 고객사들과 가격 협의에 들어갔다.

열연강판은 t당 90만원에서 106만 원으로 올리고 냉연강판은 102만원에서 118만원으로, 후판은 95만원에서 111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가격 인상은 15~20일 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포스코는 작년 7월 일부 제품 가격